



◇명성여중 학생이 장애인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다.

명성여중생 41명 소적새마을서 봉사

대만여행 취소하고 자비실천

명성여중 학생회 간부 등 41명이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운 나라사정과 사회분위기를 생각해 대만여행을 취소하고 소적새마을을 찾아 여행경비를 모두 후원금으로 내고 봉사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IMF 한파가 뭔지 잘 모르지만 보탬이 될까해서 1년간 계획했던 대만여행도 취소했어요. 하지만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장애인들을 보살피면서 마음이 더 뿌듯함을 느꼈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구립 19일 소적새마을에 도착한 학생들은 곧 7~8명씩 조를 나누어 숙소 청소에서부터 점심공양 준비에 최실히 환자 시중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들을 몰아도 대답없이 밝

은 눈만 깜박이는 자폐아들. 누군가의 도움없이 온종일 천정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만 하던 원생들이었지만 학생들은 조금씩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듯 보였다. 여자원생의 목욕을 거들었다는 김주연양(2년)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한 투정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다음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에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의 뒷모습이 한뼉씩은 더 자라있는 듯 보였다.

원주=김정은 기자

대법원, 해인골프장 허가 적법 판결

“골프가 문화유산보다 중요한가”

교계·환경단체 “행정소송 불사” 강력 대응키로

국민회의 “대선공약 지키겠다” 취소 노력

대법원이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가이게발이 추진중인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해인총림대책위등 교계와 문화재·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최종영판사는 “가이게발의 골프장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내준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여론에 따라 취소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는 이수성 전국무총리가 제183회 국회답변에서 해인골프장 문제와 관련 민족문화재수호 차원에서 철회토록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단체들과 협의하여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야산골프장지해인총림대책위, 고령군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등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27일 대구 인종사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세정치국민회의는 국민재산권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적법할지라도 이번 대선공약에서 사찰환경보존을 약속한 만큼 관계기관 설득을 통하여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대법원 판결문을 조사분석하여 사찰환경과 관련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단체와 연대하여 선언문을 채택하겠다고는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구립 21일 안양 본원법당에서 제9회 수계대법회를 보냈다.

대행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부산·광주·대전지원을 비롯 전국 각 지회에서

한마음선원 ‘수계’ 3천여 신도

참석한 3천여명이 5계를 받았다.

이날 대행스님은 수계법어를 통해 “계를 받는 것이 선업을 쌓아 삼천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이된다”며 “계를 받을 때의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올 성도절 내실있게 치룬다”

대규모 행사 자제...자비실천·철야정진 등 주류

6일 전국사암서 법회

1월6일(음력 12월8일)은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부처님 되신날(成道節)’.

전국의 각 사찰은 뜻깊은 성도절을 맞아 연등불사와 철야정진 법회를 열고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봉을 발원하는 발심의 장을 마련했다.

김천 직지사(회주 녹원)와 보은 법주사(주지 해광)는 성도절 특별정진기간과 가해정진기간을 설정해 1일부터 6일까지 용맹정

진에 들어간다. 서울 조계사(주지 현근)도 1일부터 6일까지 성도제일 특별법회와 문화예술제 제등행렬로 성도절을 풍축한다. 또 은해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대부분의 사암은 성도절 전날 밤에 ‘성불통’을 밝히고 철야정진에 들어가 당일 사시에 기념법회를 병행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관음사 주지)와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원각사 주지)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불자들이 함께하는 풍축대법회를 병행한다. 대구사원주지련은 6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성도절 기념 풍축대법회를 거행한다. 또 마·창불교련은 5일 오후 3시 마산시청에서 강당에서 관내 2백여 사암이 참여하는 제1회 성도절 합동풍축대법회를 열고 기독교의 ‘부활절’에 버금가는 행사로 육성키로 했다.



불자 성원에 감사

국민회의연등회(회장 박상규 부총재)와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현 부총재)는 구립 20일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당선과 관련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는 현수막을 조계사 앞에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뉴스 & 뉴스

BBS 사장 6일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구립23일 제 7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교방송 새사장을 1월 6일 결정, 불교방송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 사장 추천건이 논의됐으나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선임사장의 소신과 인사관리 재정부안을 받아 6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 사장 추천후보는 성낙승(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홍희홍(前 대구은행장) 김양일(울산광역시 일보 사장)씨다.

진관스님 상고 기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상고가 기각됐다.

구립 26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 상고 선고공판에서 천경호 대법관은 겸사의 상고와 진관스님의 상고에 대해 모두 “이유없음”을 선고, 쌍방상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군포교자문위 구성 추진

군포교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교인(원장 성타)은 군포교의 방향제시와 군승단의 감독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포교원내에 군포교자문위를 두기로 하고 구립 26일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고 1월중 군포교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모범 자원봉사상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스님)은 구립 29일 추무원 불교회관에서 제2회 자랑스런 모범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단체상 대상에 대전맹학교 아나눔 불교학생회, 금상에 보현행우회 영화사 방생회, 개인상 대상에는 문덕내(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씨, 금상에 김태영(생명나눔실천회 자원봉사자)씨가 각각 수상했다.

신도교육 강화 ‘신행혁신’

조계종, ‘입문교육 의무화’ 등 10대사업 확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전법의 해’ 2년차인 98년이 ‘신도교육의 해’로 선정됨에 따라 ‘신도교육의 해’ 선정 및 운영방향을 마련해 신도 교육화와 조화화를 통해 신행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신도교육의 해’ 선정은 신도 입문교육과 수계, 심화교육과 조직화, 정기적 신행과 사회활동의 전개를 신행의 전경으로 삼아 호불호법의 튼튼한 신도 조성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신도입문 교육의 필수화’ 등 10대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다.

△입문교육의 필수화=신도 입문교육을 종령 차원으로 의무화하여 연인원 10만명에게 입문교

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설립과 확충=정법도량에 반드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분사별 불교교양대학 건립을 권고·지원. △교양대학 필수과목의 통일=입문교육의 교재는 포교원에서 발간한 <불교입문>과 발간예정인 <신도교리서>로 통일. 심화 교재는 종단에서 추천. △교재 발간=(신도교리서)를 발간하고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 각 사찰은 3~6개월에 걸친 입문교육 체계를 구성. △지도자용 지침서 발간=전국 사찰에서 동일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각 교육과정에 대한 교안을 발간하여 이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 △수행 교육교재 및 방안마련 △감사 자료집 발간=감사 프로필과 전공과목,

발표 논문 등을 수록한 감사 자료집을 배포하여 유능한 강사를 발굴·활용. △교역행정 체계 정비=본사 포교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본사 및 사찰 포교규정을 제정하고 포교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포교활동 평가와 인사고과 실시=포교활동 보고서를 취합,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하며, 필요시 실사·감사를 실시. △교육 지도자 과정 개설=신도교육 담당 스님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본말사 초임주지연수 등을 활용해 추가 교육을 실시. 지역 불교대학 교육 담당자는 반드시 지도자 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김대중 대통령선거가 크리스마스인 구립 25일 ‘성탄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부인 이희여사만 김당선자가 다니는 서교당을 찾았다.

종처럼 미사를 거른 적이 없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당선자가 최대 의식일인 크리스마스 미사 불참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자신의 종교활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당선자의 개인차원이라 하더라도 특정종교를 부각시켜 보이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는 소리도 나온

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중 불교계를 둘러싼 파문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투표로 나타난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인과 속의 경호과정에서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위영란

(취재1부 부장)

DJ 성탄미사 불참 의미

어쨌든 이번의 불참을 두고 불자들은 “뭔가 다르다”며 “정권교체를 실감한다”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최근 5년동안 갖가지 종교편향으로 마음이파했던 불자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같은날 김영삼대통령이 신자로 소속

된 흥원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의 눈총을 받았던 것과 비교까지 돼 더욱 화제가 됐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김영삼대통령이 개인적 종교활동이라는 명분속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었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침묵에 예배 파문, 국방부시찰시 유독 교회만 찾아 예배를 보고 그 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당시 상황은 타종교를 가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김당선자는 이번에 종교와 관련된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취임 전에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보인 것이다.

국가 최약의 경제위기 속에서 종교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갈등을 출순수법에서 막겠다는 귀한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修理寺의 첫눈

한산의 백산호와 같이 온산의 뒤떨고 한회의 기쁨을 안고 사바에서 유락하지 취지않고 영의가사 가남은 승생의 마음 사바의 모든 것의 이 세상과 같이 깨끗하면 아마도 유락과 사바가 유무의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정축년 12월 12일 수리사 주지 성견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닳지는 모든일에 대해 어느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돼라. 무엇을 구한다, 버린다, 안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대(大) 수용의 대장부가 돼라.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장부가 돼라.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인간답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다운 삶! 모든것을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하고 믿고가는 삶,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 한마음 부산지원신도회 -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사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봉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권모집안내

1. 모집과정: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37-5305